

## 의료 담화에서 비유 사용에 대한 일반인 인식 연구\*

송현주\* · 김예니\*\* · 홍미주\*\*\*

### Abstract

Song, Hyunju, Kim, Yeni & Hong, Miju. (2024). "Study on Public Perception on the Use of Metaphors in Medical Discourse".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31(2), 75-105.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metaphorical expressions used by medical professionals in medical discourse. A sample of 142 individuals were asked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en metaphorical expressions used by health-care experts. Additionally, questions were posed about the effects of using metaphors. The ten items showed variability in the degree of appropriateness, with metaphors being considered more appropriate when the target was familiar and the similarity between the source and target domains was high. Positive aspects of metaphor use by medical professionals included aiding in understanding, with respondents perceiving such professionals as kind, considerate of patients, and trustworthy. Negative aspects included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when the similarity between the metaphorical targets was low, requiring lengthy and complex thought

---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7459).

\* First Author: Hyunju Song, Professor,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South Korea; Email: songhj@knu.ac.kr

\*\* Co-Author: Yeni Kim, Lecturer,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South Korea; Email: yeni@knu.ac.kr

\*\*\* Corresponding Author: Miju Hong, Lecturing Visiting Professor, Office of Education Innovation Polic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South Korea; Email: hongmj@knu.ac.kr

Received 15 February 2024; Reviewed 20 February~1 March 2024; Accepted 7 March 2024

processes, and potential misunderstandings of scientific facts. Approximately 15% of respondents reported their own experiences with metaphorical expressions in medical discourse, noting that these metaphors helped them understand the illness and treatment, and induced positive behavioral changes.

**Keywords:** public perception, health-care experts, metaphor, medical discourse, similarity

## 1. 들머리

이 연구의 목적은 의료 전문가들이 진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유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고찰하는 것이다.<sup>1)</sup>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의사 국가시험에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실기 시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 분야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정민주 외 2023: 103). 특히, 의료진은 질병의 유형과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환자들은 의료진으로부터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게 되었다(박용익 2014: 15-16). 이에 따라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를 포함한 비전문가와 대화할 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되도록 쉽고 정확하게 이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환자의 나이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추가 정보 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다.

환자가 질병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대상을 이용한 비유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

1) 이 연구에서 비유 표현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표준국어대사전〉)”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은유를 포함한 비유는 문학적 표현의 하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일상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로서, ‘비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특히, Dancygier & Sweetser(2014)는 『Figurative Language (비유 언어)』라는 단행본에서 질병, 과학, 종교 등 다양한 담화 장르에서 사용되는 비유적인 언어의 작용 방식과 그 설명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 다음은 의사가 혈액 검사 내용 중에 CRP와 RA 팩터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다.<sup>2)</sup>

- (1) 혈액 검사지를 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혈액 검사 내용 중에 CRP라는 내용이 있고, 아래의 RA 팩터라고 해서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그 두 개를 주로 많이 보는데요. 수치 걱정을 하시면 CRP라는 거 자체는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 게 맞다. 우리가 요 CRP를 가지고 앞으로 치료 호전 정도 요런 것도 판단을 할 거다. 근데 RA 팩터라는 거는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다. 요게 많은 거는 상관없는데, 상관없는데 사용이 되면 그게 문제지 않나. RA 팩터는 숫자가 많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요.
- (2) 알레르기 예방약으로 싱글레어가 있는데 세포벽을 안정화시키는 약이에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집먼지진드기가 들어오면 세포에서 알레르기 물질을 팍팍 내거든요. 그런데 싱글레어는 알레르기 물질이 못 나오게 세포를 감싸는 거죠. 알레르기 물질이 못 나오게 막아 놓는 거죠. 세포에 비닐을 한 번 싸는 거죠. 근데 싱글레어는 보약 먹는 거랑 비슷해요. 길게 먹고, 바로 효과 없고, 비싸고.

(1)에서 보듯이, 류머티즘 관절염 인자(Rheumatoid Arthritis Factor)는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의학 전문용어이고 따라서 RA 팩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때 의사는 ‘무기’라는 친숙한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비유를 활용한 설명은 RA 팩터 수치로 인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2)는 싱글레어라고 하는 알레르기 예방약에 대한 설명으로, ‘비닐로 세포를 싸’는 역할에, 해당 약은 오랜 기간 먹어야 하지만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고 가격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보약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비유는 비전문가인

---

2)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의료 전문가의 발화 내용은 연구진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일부이다. 따라서 구어의 특성상 조사의 빈번한 생략과 비문 등이 포함된다.

환자가 약의 작용 방식과 복용 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비유는 글자 그대로의 표현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개념을 표현해 주며, 복잡하고 장황한 설명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해 주고,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풍부하고, 상세하고,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Gibbs 1994: 124-134). 따라서 전문성이 높은 내용일수록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면 더 쉽고 생생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사소통 상황인 진료 과정에서 비유를 포함한 설명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비유가 환자에게 해당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의료 담화에서의 비유 및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지언어학계에서는 은유와 환유를 중심으로 한 비유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국내외에서는 2000년대 이후 과학, 정치, 광고 등 텍스트 장르에 따른 비유 사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의료 담화에서 사용되는 비유에 관한 최근의 국내 연구는 전해영·유희재(2016), 정수정(2017), 송현주(2020, 2023), 김철규(2021), 권연진(2022) 등이 있다.<sup>4)</sup> 이들 연구는 의료 담화에 나타난 비유 표현을 대상으로 한국인이 질병에 관한 개념화 양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비유를 통한 질병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들 연구는 비유 표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양상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의료 담화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논의는 박용익(2014), 이상수(2015), 이명선 외(2023), 유효현·박귀화(2018), 정민주 외(2023), 조민하

- 
- 3) 같은 약에 대해 또 다른 의사는 다음과 같이, ‘보약’이 아닌 ‘영양제’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싱글레어는 알레르기 약 중에 영양제 같은 약이에요. 하루에 한 알씩 드세요. 영양제 먹듯이.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으면 좋구요.”라고 설명한다고 하였다. 비유는 대상 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므로 ‘영양제’에 비유한 경우에는 ‘매일 먹는다, 먹으면 좋지만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을 유사한 속성으로 본 것이다. 결국 의료진이 해당 약에 대해 어떤 점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유사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비유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은 환자가 약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4) 이들 선행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국외의 질병 담화 관련 연구에 대한 것은 송현주(2023)를 참고할 수 있다.

(2023) 등이 있다. 박용익(2014)은 대화분석 이론에 기반한 연구로 의학과 인문학의 관점을 통합하고, 의료 커뮤니케이션 교육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검진 과정 설명, 중병 진단 통보, 중증 환자 치료’ 대화 등 대화 상황별로 의료 전문가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설명한 우상수(2015)의 연구가 있으며, 이명선 외(2023)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환자의 요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환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간호학, 치의학, 의학, 인문학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한 성과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5)</sup>

유효현·박귀화(2018)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의료면담을 잘하는 의사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교수는 ‘이해’, ‘공감’, ‘태도’, 학생은 ‘정보’, ‘필요’를 사용하는 차이가 있었다.<sup>6)</sup> 정민주 외(2023)는 한방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 대화를 대상으로 진료 단계별 특징을 살피고, 의사소통 교육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sup>7)</sup> 조민하(2023)는 실제 의료 상담 대화를 들려주고 척도 평가와 서술형 평가를 통해 환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주목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살핀 것이다.<sup>8)</sup>

지금까지 의료 전문가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연구는 의사소통의 방법, 의료인의 인식 차이,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요소 등에 주목해 왔으며, 전문가

- 
- 5) 다만 이들 연구는 의료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설명’과 관련한 세부 방법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한 설명의 방법이나 효과 등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렵다.
  - 6) 여기에 대해서 유효현·박귀화(2018: 454)는 “교수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의사소통 기술을 통한 바람직한 의사와 환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학생은 의사의 의료면담의 일차적인 목적인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라고 보았다.
  - 7)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의료 대화분석에 기반한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 향상 방안은 다음과 같다. 환자의 발화에 대한 경청과 공감적 듣기의 태도, 전문가인 의사와 비전문가인 환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쉬운 설명, 환자가 질문을 이해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다.
  - 8) 이 밖에도 질병 체험 서사 및 의료 인문학 교육에서 질병 체험 서사의 활용(황임경 2010, 2013), 환자의 질병 체험 내러티브에 대한 교육적 활용(안영미·유영미 2018) 등도 주목할 만하다.

와 비전문가 간의 대화에서 설명을 목적으로 사용한 비유의 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어학적 관점에서 의료 전문가가 사용한 비유 표현의 적절성과 태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환자와 의료 전문가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비유 표현의 사례를 공유하고 예비 의료인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의료진이 사용한 비유 표현의 적절성 정도, 의료진이 비유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해 설명하는 것의 효과와 문제점, 일반인이 경험한 질병 관련 비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4장은 요약과 남은 과제이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의료 전문가가 사용하는 비유 표현에 대해 일반인의 수용 정도나 인식을 확인하고 의료 담화에서 일반인이 경험한 비유 표현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3) a. 의료 전문가가 사용하는 비유 표현에 대해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여기는가?
- b. 의료 전문가가 사용하는 비유 표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 c. 의료 전문가가 일반인들에게 사용한 또 다른 비유 표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연구 절차

먼저,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하고, 예비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송현주(2023)에서 제시한 의료전문가가 사용한 비유 표현 중에서 18개를 골랐으며,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sup>9)</sup>

예비조사는 10월 10일부터 10월 23일에 시행되었다. 조사 결과, ‘읽어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 제시문이 군더더기가 많고 읽기 어렵다, 문항 수가 많다’ 등의 피드백을 받았다. 이에 문항의 수를 10개로 줄이고, 인터뷰 자료를 일부 수정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해당 비유 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 문항을 정제하였다. 또한, 일반의학 분야 7개, 치의학 분야 2개, 한의학 분야 1개로, 총 10개로 구성하였으며, 비유 표현에 대한 적절성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온 것을 고루 선택하였다. 즉, 적절하거나 질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정도가 높은 비유 표현 3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정도가 높은 3개, 응답자에 따라 적절성의 정도가 골고루 나온 4개를 골랐다.

다음으로 실제 조사는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비유 표현에 대한 일반인의 수용 정도와 적절성 정도를 묻는 문항 10개와 비유 표현 사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비유 표현 청취 경험 등을 묻는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의 내용, 응답자 등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9) 송현주(2023)는 의료 전문가의 비유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이며, 이 연구는 송현주(2023)의 후속 연구로, 실제로 의료진이 사용한 비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이 연구를 위해 별도의 데이터 수집 및 전사 과정 없이 이전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예비조사에서 선택한 18개의 항목은 비유의 적절성이 높은 것, 보통인 것, 낮은 것의 세 가지 유형을 6개씩 연구팀에서 추출한 것이다.

(4) 설문 내용: 의료진의 담화에 나타나는 비유 표현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및 경험 조사

응답자: 10대 ~ 60대 남녀 142명<sup>10)</sup>

조사 기간: 2023.10.24.-10.27.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구글 독스(Google Docs)를 활용하여 작성·배포하였다.

### 3. 비유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

#### 3.1. 비유 표현의 적절성 정도

여기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비유 표현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sup>11)</sup>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10개의 비유 표현을 포함한 문항 가운데, 일반인들이 판단한 적절성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의료 담화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갖고 있어, 의료진은 질병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때 의료진이 사용하는 비유가 일반인들에게도 유의미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sup>12)</sup>

---

10) 응답자의 연령과 성별 분포는 20대 22명, 30대 23명, 40대 67명, 50대 23명, 60대 이상 7명이 고, 남자 58명, 여자 84명이다. 이 연구의 목적이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는 데 있지 않으므로, 연령과 성이 고루 분포하도록 응답자를 모집하지는 못하였으며,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령과 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11) '태도(attitude)'는 태도 대상과 상황에 관련된 소지자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동적인 영향력을 주는 심적이나 생리적인 준비 상태에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태도는 인지 요소, 평가 요소, 행동 요소로 구성되는데 인지 요소는 태도 대상에 대해 소지자가 갖고 있는 모든 상념과 지식을 말한다. 그리고 평가 요소 또는 정서 요소는 태도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태도 대상에 대해 지니는 호오적 평가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행동 요소는 태도 대상과 관련된 호의적으로 또는 혐오적으로 취하는 행동, 의향의 면을 말한다(한규석 2007: 210-212). 본 연구에서는 의료진이 사용하는 비유에 대한 일반인의 지식과 경험, 호오적 평가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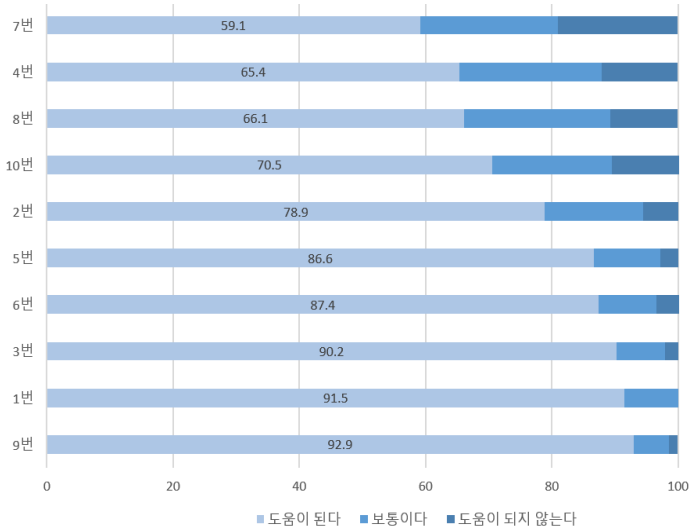
객관식 문항의 응답 항목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점)’에서부터 ‘매우 도움이 된다(5점)’까지 5개의 선형 배율로 나누었으며, 각 문항의 응답자 비율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비유의 적절성에 대한 문항별 응답 비율

문항	응답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점)	보통이다. (3점)	도움이 된다. (4점)	매우 도움이 된다. (5점)
1번		0	0	8.5	18.3	73.2
2번		1.4	4.2	15.5	26.8	52.1
3번		0	2.1	7.7	29.6	60.6
4번		2.8	9.2	22.5	24.6	40.8
5번		0.7	2.1	10.6	23.2	63.4
6번		0	3.5	9.2	26.1	61.3
7번		6.3	12.7	21.8	22.5	36.6
8번		1.4	9.2	23.2	24.6	41.5
9번		0	1.4	5.6	22.5	70.4
10번		2.1	8.5	19	27.5	43

<표 1>을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의 비유 사용이 질병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4점, 5점), 보통이다(3점), 도움이 되지 않는다(1점, 2점)’로 묶어 제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 12) 정민주 외(2023: 130)에서는 전문가인 의사와 비전문가인 환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쉬운 설명이 중요한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하였다. 의료 행위는 전문성이 높으며 의사와 환자는 의료 지식과 기술에 있어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의료 전문가는 일반인들에게 쉬운 설명을 위한 한 방법으로 비유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들 표현이 갖는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비유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3.1.에서는 [그림 2]의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비유의 적절성을 ‘높음, 보통, 낮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3)</sup> 즉, 85% 이상의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고 한 경우에는 ‘적절성이 높은 비유’로, 84~70%의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경우는 ‘적절성이 보통인 비유’로, 70% 이하의 응답자만이 도움이 된다고 한 경우에는 ‘적절성이 낮은 비유’로 분류하였다.

### 3.1.1. 적절성이 높은 비유

비유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항은 9, 1, 3, 6, 5번이며, 해당 비유 표현은 다음과 같다.

13) 제시한 10개 문항 중에서 ‘적절’의 응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조차 약 60%의 응답자가 ‘적절하다’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의료 전문가가 사용하는 비유 표현은 의료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절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5) a. [9] 스케일링이 청소라면 잇몸 치료는 대청소예요. 스케일링은 눈에 보이는 치석을 청소하는 거고, 잇몸 치료는 눈에 안 보이는 치석까지 대청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가구 밑이나 구석까지 꼼꼼하게 대청소하는 거랑 같죠. 그걸 해야지 풍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잇몸 건강에 도움이 돼요.
- b. [1] 콩팥은 체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체가 태어날 때부터 앓은 사람도 있어요. 원래 체가 촘촘하면 소변만 나오는데 체가 얼금얼금하면 쌀을 씻다가 체에서 나오듯이, 피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게 혈뇨예요.
- c. [3] 보청기는 안경이에요. 보청기를 처음 쓰면 걸리적거리고 귀가 멍멍하고 안 좋다고 해요. 근데 시력이 안 좋을 때 안경을 처음 쓰면 코에 계속 닿고 불편하죠. 하지만 안경을 계속 쓰다 보면 쓴지 안 쓴지도 모르잖아요. 보청기도 그래요.
- d. [6] 피부 종양은 빙하예요. 피부 종양 수술을 한 후에 피부가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빙하는 30% 정도는 물 밖에 있고, 70%는 가라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보다 훨씬 큰 부분이 바다 아래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종양도 피부 밑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그 부분이 많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 e. [5] 독감 백신은 우산이에요. 우산을 쓰는 게 백신을 맞는 거고, 우산을 안 쓰는 게 백신을 안 맞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백신 3가와 4가의 차이는 작은 우산을 쓰는 것과 큰 우산을 쓰는 것의 차이예요. 큰 우산이 4가 백신이죠. 근데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우산을 쓴다고 비를 전혀 안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막아 주긴 하죠.

(5)의 비유를 비유 대상인 근원 영역과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인 목표 영역으로 나누어 대응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적절성이 높은 비유 표현의 대응 관계

	근원 영역	목표 영역
잇몸 치료	청소	스케일링
	대청소	잇몸 치료
	눈에 보이는 먼지	스케일링의 대상(치석)
	겉면만 청소	스케일링
	눈에 잘 안 보이는 먼지	잇몸 치료의 대상
	꼼꼼한 청소	잇몸 치료
콩팥 기능이 약한 사람	체	콩팥
	체가 얇은 사람	콩팥이 약한 사람
	춡춡한 체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
	얼금얼금한 체	콩팥 기능이 약한 사람
	쌀이 빠져나감	피가 빠져나감(혈뇨)
보청기 사용의 불편함	안경	보청기
	처음 쓰면 코에 닿고 불편함	처음 쓰면 거리적거리고 귀가 멍멍함
	계속 쓰면 불편함을 모름	계속 쓰면 불편함을 모름
종양 수술 후 피부 꺼짐	빙하	피부 종양
	빙하 70%의 가라앉은 부분	수술 밑의 숨겨진 부분
독감 백신의 종류와 효과	우산	독감 백신
	우산 쓰기	백신 접종
	작은 우산	3가 백신
	큰 우산	4가 백신
	우산이 비를 막아 주긴 하지만, 우산을 써도 비를 맞음	백신이 독감을 막아 주긴 하지만,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림

잇몸 치료를 대청소에 비유한 (5a), 콩팥을 체에 비유한 (5b), 보청기 사용의 불편함을 안경 착용의 불편함에 비유한 (5c) 이상의 세 문항에 대해서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적절한 비유라고 하였으며, 특히 (5b)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sup>14)</sup> (5d), (5e)는 ‘보통이다’

14) 콩팥을 체에 비유한 사례(4b)에 대해서는 73.2%(5점), 18.3%(4점), 8.5%(3점)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콩팥’을 ‘체’에 비유한 것은 친숙한 비유임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덜 친숙한 비유 표현인 잇몸 치료를 대청소에 비유한 사례(4a)의 경우에는 70.4%(5점), 22.5%(4점), 5.6%(3점), 1.4%(2점)로 응답하였다. 이 비유가 잇몸 치료에 대해 매우 잘 설계된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비유의 친숙도와 비유 대상의 유사성 차이가 적절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10% 내외로 (5a), (5b), (5c)에 비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일반인들이 적절성이 높은 것으로 답한 비유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근원 영역의 대상이 매우 친숙하다. 즉, 비유의 대상이 ‘체, 안경, 우산’과 같이 친숙하면서도 구체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대상이거나 ‘청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행동이며, ‘빙하’와 같이 선명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는 대상이다. 다음으로,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유사성이 높다. <표 2>에서 보드시피, 둘 사이의 유사성이 높고 대응 요소가 여러 개라는 특성이 있다.

### 3.1.2. 적절성이 보통인 비유

비유의 적절성이 보통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문항은 2, 10번이며, 해당 비유 표현은 다음과 같다.

(6) a. [2] 감기약은 학원 강사예요. 감기약을 먹었는데 왜 감기가 더 심해지는지 물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학원에 다닌다고 성적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기도 똑같아요. 의사가 감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학원 강사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원래 자기 몸의 면역력으로 감기를 이겨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도와주고 치료를 해도 몸 스스로가 면역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감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b. [10] 치주낭은 옷의 칼라예요. 잇몸과 치아 쪽에 공간이 있는데 이게 치주낭이에요. 옷 칼라와 목 사이에 손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듯이, 치아 쪽에도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치주낭이에요. 여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치태가 쌓이거나 치석이 생기면 점점 더 파고 들어가서 문제가 돼요.

(6)의 비유를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으로 나누어 대응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적절성이 보통인 비유 표현의 대응 관계

	근원 영역	목표 영역
감기약의 효과	학원 강사	감기약
	학원을 다님	감기약을 먹음
	학원을 다닌다고 성적이 다 오르지 는 않음	감기약을 먹는다고 감기가 다 낫지 는 않음
	학원을 다니며 스스로 공부해야 함	약을 먹고 스스로 면역력을 회복해 야 함
치주낭	옷의 칼라와 목 사이의 공간	잇몸과 치아 사이 공간, 치주낭
	옷의 칼라에 때가 쌓이는 것	치주낭에 치태나 치석이 쌓이는 것

감기약의 효과를 학원 강사에 비유한 (6a), 치주낭을 옷의 칼라에 비유한 (6b) 두 문항에 대해서 각각 78.9%, 70.5%의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였으며,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6a)는 15.5%, (6b)는 19%로 적절성이 높은 비유에 비해 ‘보통’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의 (7)은 해당 비유 표현이 적절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유에 관한 응답 결과 중 일부이다.

- (7) a. 감기약을 학원 강사에 비유한 것은, 감기약이 직접 몸에 작용하는 데 비해 학원 강사는 학생에게 직접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다.
- b. 목의 칼라는 직관적이지 않다.
- c. 칼라에 비유한 거는 이해가 안 된다. 칼라가 있는 옷도 있고 없는 옷도 있는데 왜 그런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다.

앞 절에서 제시한 비유와 달리, 여기에서 제시한 비유 표현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까닭은 (7)에서 보듯이,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유사성이 낮기 때문이다. (7a)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기약’은 직접 몸에 작용하지만 ‘학원 강사’는 학생에게 직접 작용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차이가 존재한다.<sup>15)</sup> 또한, (7b)와 (7c)에서 보다

15)한 심사자는 ‘학원 강사’의 비유에 대한 적절성이 낮은 까닭이 세대 차이에 있을 수 있으며,

시피, ‘치주낭’과 ‘옷의 칼라’ 사이의 관계 역시 유사성이 낮은데, 치주낭에 치태나 치석이 쌓이면서 문제가 되는 것과는 달리 목과 옷 사이의 공간에 무엇인가가 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치주낭’과 ‘옷의 칼라’의 유사성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면서 이 둘의 유사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신장’을 ‘정수기’에 비유하는 것에 비하면 ‘치주낭’을 ‘칼라’에 비유하는 것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 3.1.3. 적절성이 낮은 비유

비유의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문항은 8, 4, 7번이며, 해당 비유 표현은 다음과 같다.

- (8) a. [8] 항암 치료는 상처에 약을 덧바르는 것과 같아요. 항암 치료 시 같은 자리에 여러 번 치료하는 것은 무릎이 까졌을 때 하는 치료와 같아요. 무릎이 까져도 빨간 약을 몇 번씩 덧바르는데 항암 치료도 빨간 약 바르는 것과 같아요.
- b. [4] 한약 짓기는 된장찌개 끓이기에요. 한약 지을 때, 소화 기능이 나빠서 약을 지으러 온 환자가 진료가 끝나고 나가면서 두통약도 같이 넣어서 지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된장찌개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끓이긴 하지만, 두부랑 야채랑 넣고 끓이다가, 갑자기 거기에 고추장을 넣으면 된장찌개도 아니고 고추장찌개도 아니고 못 먹게 되죠. 한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 c. [7] 직장암 수술한 환자에게 인어공주가 다리를 얻게 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냐고 물어보면 꼬리를 잃었다고 답해요.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잃었잖아요. 직장암 환자들이 수술을 해서 병은 치료되었는데 대변을 못 봐서 힘들고 하니깐 자기가 잃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병은 고쳐졌는데도요.

(8)의 비유를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으로 나누어 대응 관계를 살펴보면

---

의사의 나이대와 적절성을 낮게 평가한 나이대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와 일반인의 세대 차이를 변수에 두고 상관성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이 둘 간의 상관성은 중요한 변수로 함께 두고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와 같다.

<표 4> 적절성이 낮은 비유 표현의 대응 관계

	근원 영역	목표 영역
항암 치료 과정	무릎이 까졌을 때의 치료	항암 치료
	빨간 약을 덧바름	여러 번 치료함
한약 짓기	된장찌개 끓이기	한약 짓기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고추장을 넣음 못 먹는 음식이 됨	한약을 지을 때 여러 재료를 추가함 (못 먹는 한약이 됨)
직장암 수술	인어공주가 다리를 얻음	직장암 환자가 병을 치료함
	인어공주가 꼬리를 잃음	직장암 환자가 대변을 못 봄
	인어공주가 목소리를 잃음	

(8)은 ‘도움이 된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수가 70% 이하인 문항이다. 또 20%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암 수술 환자 진료 과정에서 사용한 비유인 (8c)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9%로 모든 문항 중 가장 높았으며, 한약 짓는 과정을 된장찌개 끓이기에 비유한 (8b)가 12%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의 (9)는 해당 비유 표현이 적절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유에 관한 응답 결과 중 일부이다.

- (9) a. 항암 치료를 하면 보통 전신에 주사를 맞게 되는데, **왜 동일한 자리에 여러 번 치료한다고 하는지가** 우선 이해가 안 된다.
- b. 항암 치료라는 복잡한 과정을 **너무 쉬운 단순한 예에 비유**한게 아닌가 한다.
- c.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찌개를 끓일 때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 고추장을 넣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추장 대신 순두부를 넣는다와 같은 비유를 썼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d. 인어공주 **애기를 잘 몰라서** 그 사례는 이해가 안 된다.
- e. 인어공주 비유는 **직접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절성이 낮다고 평가된 비유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유사성이 낮다. 즉, (9a), (9b)에서 보다시피, 항암 치료를 무릎에 약을 덧바를 것에 비유할 경우 반복되는 치료라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암은 찰과상 치료와는 달리, 치료 과정의 고통과 부작용이 크고, 치료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비유 대상 간의 유사성이 매우 낮다. 둘째로, 적절성이 높은 비유와 비교할 때 이들 비유에서 사용한 근원 영역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sup>16)</sup> (9c), (9d), (9e)의 예에서 보듯이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언어공주 이야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sup>17)</sup>

### 3.2. 비유 표현 사용의 효과

의료 전문가가 사용하는 비유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 (10) a. 의료진이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환자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b. 의료진이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게 되나요?
- c. 위의 비유 중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했나요?
- d. 의료진이 비유를 사용해서 질병을 설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6) 이병민(2015: 141-142)은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목표물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유물과 적절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사용된 비유물이 학생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료 담화에서도 비유물이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비유 사용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17) 이와 관련하여 “직장암 관련 비유는 대변을 못 봐 힘들어하는 환자를 향해 마치 타하는 뉘앙스가 느껴져 점수를 비교적 낮게 주었다.”라는 답변도 있었다. 적절성이 낮은 비유는 일반인들이 질병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 (예라고 답변한 경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a)와 (10b)는 의료진의 비유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관한 질문이고, (10c), (10d), (10e)는 부정적인 면에 대한 것이다.

### 3.2.1. 비유 사용의 긍정적 효과

의료진의 비유 사용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응답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sup>18)</sup>

- (11) a.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 **어려운 의료 용어와 질병과 치료의 인과관계 등이 쉽게 이해**가 되고 의료 용어만으로 설명하면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비유를 사용하면 그 **심각함이 덜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 b. **병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고**, 이해가 쉬워지면 **관리하는 것에도 적극적**이 되는 것 같다.
- c. **병이나 치료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해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될 것 같다.

(11)에서 보듯이, 의료진이 비유를 사용할 경우 일반인들은 ‘의료 용어, 질병 치료의 인과관계, 치료 과정’ 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의료진이 비유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할 경우 병이나 치료 과정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병의 치료나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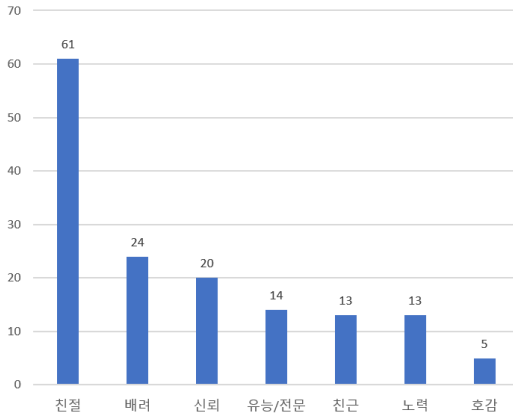
다음으로, 의료진의 비유 사용에 대한 일반인의 감정적 평가를 살펴보면,

---

18) 권혁순·노태희(1999: 670)는 비유의 효과에 대한 과학 교사들의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비유가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이게 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사고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이라는 데 80% 이상의 교사들이 동의 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과학 교육 역시 전문가인 교사와 비전문가인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이며, 이는 의료 담화에서 의료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의사소통과 유사하다. 따라서 의료 담화에서도 비유가 개념 이해와 구체성 확보, 흥미 유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체로 비유를 사용하는 의료진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유 표현을 사용하여 환자와 대화하는 의료진에 대한 평가의 양상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요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9)</sup>



[그림 3] 비유를 사용하는 의료진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

응답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친절 > 배려 > 신뢰 > 유능/전문성 > 친근 > 노력 > 호감’의 순이었으며, 특히 ‘친절’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sup>20)</sup> 즉, 의료진이 비유 표현을 사용해 환자와 대화하면, 일반인들은 의료진이 친절하고 환자를 배려한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으며, 이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유능하다고 인식하게 된다.<sup>21)</sup>

19) 여기에서는 빈도 5 이상인 평가어만을 제시하였는데, 빈도 4 이하로 ‘다정, 재치, 공감, 관심’ 등이 나타났다.

20) 친절함과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은 의료진과 일반인의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김가영 외(2020: 89)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는 의과대학 임상 실습 학생들이 ‘친절하고 상냥하며, 환자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공감적이며,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고 충분히 설명한 것’을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보았다.

21) 조민하(2023: 9)에 따르면 의사의 친절함과 관련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단어는 ‘설명’이고 그다음이 ‘자세한’이다. 두 단어는 결합 관계를 갖고 있어 ‘자세한 설명’을 하는 의료인을 가장 친절하다고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빈도 6위에 있는 ‘효과적인, 쉽게’ 역시 설명과 관련되므로 ‘친절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 정보를 환자가

의료 전문가의 비유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일반인의 응답을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2) a. **친근하고 권위적이지 않아서** 좋다.
- b. **친절하고 자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 c. **편하고 친근감이** 생긴다. 의학용어만 쓰면 거리감과 딱딱함이 느껴진다.
- d. 의사는 웬지 다가가기 어려운데 비유를 사용하면 일단 **긴장을 덜 할 것** 같다.
- e. 쉽게 이해시켜 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쉽게 설명하려면 그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내 병에 대한 **전문성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된다.
- f. **능력 있는 의사**로 평가한다.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건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 g.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주려고 **노력하는 좋은 의사**라고 생각된다.
- h. 의사에 대해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믿음과 신뢰도**가 상승할 것 같다.

(12)에서 보듯이, 일반인들은 의료진이 비유를 사용해 설명할 때 의료진이 친절하고,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려하며 노력한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전문성을 갖추고, 유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진이 비유 표현을 사용하면 일반인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유 표현이 질병과 치료 과정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고, 의료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의료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 질병의 치료인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사용하는 비유 표현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과 신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가족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 3.2.2. 비유 사용의 부정적인 효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의료 전문가가 비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의료진이 비유를 사용해서 질병을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97.2%는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고, 2.8%만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의료진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13) a. 비유는 비유일 뿐 **정확하지 않다.**

b. 예를 들어 환자가 암 같은 병이 있는데 의사가 비유해서 설명하면 오히려 **복잡하고** 둘 다 생각해야 돼서 상황에 맞게 비유하면서 설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c. 하지만, 환자의 쉬운 이해만을 위해 “비유만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환자에게 우선 비유를 통해 전체적인 틀에 관한 이해를 시켜주고, 전문용어도 같이 활용하여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사의 의무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sup>22)</sup>

(13)에서 보듯이, ‘부정확함, 복잡함, 정확한 정보 전달하지 못함’을 이유로 비유 사용에 주의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설문 대상이 된 비유 10문항에 대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유형별로 묶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낮은 유사성

a. 항암 치료는 빨간약을 바르는 치료와는 난이도나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비유 대상으로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22) 이 응답자의 경우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은, 내 의견은 의사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의사가 환자를 이해시키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와 신뢰 관계를 쌓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비유 사용의 긍정적인 면도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 b. 불필요한 비유를 사용했거나 비유되는 두 개념 사이에 유사성이 높지 않아서 부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비유에서는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유사성이 매우 중요한데, 둘 사이의 ‘상당한 차이가 나고’, ‘두 개념 사이의 유사성이 그리 높지 않음’ 때문에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또한, ‘비유가 오히려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 ‘과한 비유로 인해 더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답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역시 개념 사이의 유사성이 높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5) 길고 복잡한 사고 과정

- a. 쉽게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경우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귀찮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b. 이해하려면 신경을 써서 들어야 해서 **피곤하다.**
- c. 설명이 자세하면 좋지만 **길어지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거 같다.**
- d. 너무 말이 길어지면 오히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의료진이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게 되면 내용이 다소 길어질 수 있고 따라서 (15)에서 보드시피, ‘귀찮음, 피곤함, 집중력이 떨어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 이해도가 떨어짐’ 등의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sup>23)</sup>

(16) 경험과 지식의 차이

- a. **인어공주를 읽어본 적이 없다.**
- b. **특정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으로 비유하는 경우, 안정 비유는 안정 쓴

---

23) 한 응답자는 “쉽고 간단한 경우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비유를 들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쉽고 간단한 내용을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더 길고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만 체감할 수 있고, 된장찌개 끓이기 비유는 찌개 레시피를 모르는 사람은 **남득하기 어렵다.**

- c. 안경 비유의 경우, 안경을 쓰지 않는 환자라면 바로 이해하기 힘들 것 같다.  
인어공주 비유의 경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비유로 든 다른 경우보다는 이해하기 조금 더 어려운 것 같다.**

의료진이 질병에 대해 더 잘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할 때에는 대화 당사자의 경험과 지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24)</sup> (16)에서 보다시피, ‘인어공주’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거나, 안경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거나, 된장찌개와 고추장찌개 끓이는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비유를 통한 질병 설명이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sup>25)</sup>

#### (17) 오해의 소지, 과학성의 결여

- a. 비유 대상과 해당 질환이 어울리지 않아 **자신의 상태를 오해할 수 있다.**
- b. 진료와 치료는 과학이라 생각하는데, 비유 표현이 딱히 **과학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17)에서 보듯이,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오해할 수 있고, 의학 분야 자체가 과학적 지식과 근거에 기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비유를 사용하면 과학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료진이 사용하는 비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비유

---

24) 한 심사자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어공주의 예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인어공주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한 뒤 해당 비유를 사용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 가능함을 지적해 주었다. 또한, 그 이유로 비유는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는 근원 영역에 기대기 때문에 화자가 청자에게 해당 인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유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예문을 읽고 응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은 상황은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5) 보청기를 안경에 비유한 경우는 적절성이 높은 비유에 속하였는데,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소수 의견에서 위와 같은 이유가 제시되었다. ‘보청기-안경’ 비유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지만, 안경을 써 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용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즉, 의료진이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사용하면 일반인이 질병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비유는 직접적인 설명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질병의 위험성이나 중요한 특성이 축소되거나 은폐될 수 있다.<sup>26)</sup> 예를 들어, ‘항암 치료’를 ‘빨간약을 바르는 치료’로 비유하면, 빨간약을 발라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므로 항암 치료에 대한 환자의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빨간약을 덧바르는 것과 항암 치료는 대상, 방법, 난이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항암 치료의 복잡성과 부작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료 전문가가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할 때에는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간의 유사성이 높은 대상을 사용하고,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해지지 않도록 내용을 구성하며, 대화 상대의 경험과 지식을 고려하여 비유 대상 선정 및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3.3. 일반인이 경험한 비유 표현

질병에 대해 말할 때 다양한 비유가 사용된다. 그런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 질병에 관해 비유를 사용한 설명을 들은 경험과 해당 비유의 이해도에 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진에게서 비유를 포함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80%,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5%로 전체 응답자의 85%가 의료진으로부터 비유를 포함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답하였다. 이는 실제

---

26) Lakoff and Johnson(1980)은 개념적 은유를 위해 어떤 근원 영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목표 영역의 특정 양상은 부각되고 그 외의 양상은 은폐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철규(2021)에서도 코로나 19와 관련된 개념적 은유가 특정 과학적 사실과 사회적 현실을 부각 또는 은폐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방송매체가 사용하는 은유를 비판적으로 성찰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의료 현장에서 설명의 도구로서 비유가 충분히 사용되지 않거나, 환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비유가 잘 사용되지 않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 전문가가 비유를 사용할 때 환자에게 질병을 좀 더 쉽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진료 시간이 길어지고 환자가 질병에 대해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일반인들은 의료진이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을 들을 기회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sup>27)</sup>

다만, 응답자의 15%는 질병과 관련된 비유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 그중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8) a. **운동은 꾸준함이 중요하다.** 하루에 총알 100발을 다 쓰는 사냥꾼과 **하루에 10발씩 10일간 총알을 쏜 사냥꾼** 중 누가 더 사냥감을 많이 잡았을까? 당연히 후자이다.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건강을 위해선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 b. **혈관 속 노폐물이 쌓여 막힐 수 있는 경우를 하수구 속에 낙엽들이 쌓여서 막힐 수 있는 상황과 같다.** 그래서 가을에는 낙엽을 치우는 분들이 필요하다.
- c. **저장성 빈혈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은행에도 돈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저축이 필요하다.
- d. **당뇨는 혈당을 낮춰주는 공장이 고장 난 것이다.**
- e. **어깨의 늘어난 힘줄을 속옷 고무줄 늘어난 거랑 같다.**
- f. **피부가 해졌으니 문이 열려 세균이 잘 들어간다.**

(18)에서 보듯이, ‘꾸준한 운동 - 꾸준한 연습, 혈관 - 하수구, 노폐물 - 낙엽, 빈혈 - 돈이 없는 상태, 당뇨병 - 공장의 고장, 힘줄 - 고무줄, 피부 - 문’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는 환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27) 또한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유에 대해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비유 표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좁아진 경우, ‘혈관이 실처럼 가늘다’라고 의료진이 설명할 때 일반인들인 이 표현이 비유임을 기억하고 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 있는 친숙한 대상을 통해 전문적인 개념인 질병의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외에도, ‘질염은 감기이다, 갑상선은 엔진이다, 무릎 연골은 톱니바퀴이다, 담낭은 주머니이다, 발목 인대는 고무줄이다, 상처는 찌른 과일이다’ 등과 같은 비유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료 전문가의 비유 사용과 관련하여, 그 이해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9) a. 그렇게 비유를 해 주니까 **이해가 잘 되었고**, 눈에 느껴지는 불편감이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 b. 질염을 감기에 비유한 설명을 들으니 병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혹여 증상이 생겨도 **불안감이 덜할 것 같아서 좋았다**.
- c. 눈의 건조함에 대해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듯 눈에 눈물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을 때 인공눈물을 잘 챙겨 넣는 부분에 대해 와닿게 느껴져 핸드크림을 바르듯 **일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의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 d. 피부과에서 기미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총 8~9회의 시술을, 일주일에 1회씩 받아야 했다. 약간의 인내가 필요했고 한 번의 시술로 눈에 띄는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의사가 초반 1~3회의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우선 운동장의 큰 돌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 준 적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시술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조금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분하게 의사를 믿고 꾸준히 2달 동안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19)에서 보다시피, 의료진이 비유를 사용하면 일반인들은 질병과 치료에 대해 이해가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안도감을 느끼고, 불안감이 덜해지며, 질병 치료와 관련한 생각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꾸준한 치료를 결심하게 된다. 이는 의료 전문가가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가 질병과 치료에 대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함을 보여준다.<sup>28)</sup>

28) “원본 약과 복제약의 차이를 달리기에서 출발선이 다른 것으로 비유한 사례가 있었는데 납득

## 4. 마무리

이 연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담화에서 의료진이 사용하는 비유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일수록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면 더 쉽고 생생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의사소통 상황인 의료 담화에서 적절한 비유를 사용한 설명은 환자와 보호자가 질병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둘째, 10대~60대 남녀 142명을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가 사용한 비유 표현 중 10개를 선정하여 적절성을 평가하게 하고, 비유 사용의 효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먼저, 10개 항목 중에서 비유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항은 5개로, 이들 비유는 근원 영역의 대상이 매우 친숙하며,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유사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비유의 적절성이 보통 정도인 문항은 2개로, 적절성이 높은 비유에 비해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유사성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비유의 적절성이 낮은 문항은 3개로 비유 대상 간의 유사성이 매우 낮고, 근원 영역 중 일부는 친숙하지 않은 대상이거나 다른 경험에 기반하고 있었다.

셋째, 의료진의 비유 사용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응답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또한, 일반인의 감정적 평가를 살펴보면, 대체로 비유를 사용하는 의료진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평가어를 살펴보면 ‘친절 > 배려 > 신뢰 > 유능/전문성 > 친근 > 노력 > 호감’의 순이었으며, 특히 ‘친절’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의료진이 사용하는 비유의 부정적인 면은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유사성이 낮고, 길고 복잡한 사고 과정을 요구하며, 경험과 지식의 차이로 인해 이해

---

이 잘되지 않았고 적절하지 않은 비유였다.”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 사례와 같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부적절한 비유가 진료 과정에서 사용되면, 환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에게는 질병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비유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과학적 사실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비유 사용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기인한다. 응답자의 15% 정도는 ‘노폐물 - 낙엽, 빈혈 - 돈이 없는 상태, 당뇨병 - 공장의 고장’ 등과 같은 의료 담화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비유 표현을 보고해 주었으며, 이러한 비유는 환자가 병과 치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예비 의료인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의료 전문가들에게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료 전문가가 적절한 비유 표현을 사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진료 과정상의 이점은 물론이고, 유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권연진(2022), <정치담론 상에서 코로나19 은유의 개념화 양상>, 《영어학》 22, 871-890, 한국영어학회. Kwon, Y. (2022). The conceptualization of Covid-19 metaphor in political discourse.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871-890.
- 권혁순·노태희(1999), <과학 교사들의 비유 사용 실태 및 인식 조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9(4), 665-673. Kwon, H., & Noh, T. (1999). A study on science teachers' practices and perceptions of using analog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19(4), 665-673.
- 김가영·주예진·김정윤·성재은·공혜정·김재명·김지웅·박용익·강재구(2020), <의과 대학 임상실습 학생과 환자 및 보호자의 의사소통에 대한 질적 연구>, 《텍스트 언어학》 48, 77-100, 텍스트언어학회. Kim, K., Ju, Y., Kim, J., Seong, J., Kong, H., Kim, J., Kim, J., Bak, Y., & Kang, J. (2020). A study on communication between medical students and patients and/or their guardians during clinical clerkships: A qualitative research. *Textlinguistics*, 48, 871-890.

- 김철규(2021), <신문 사설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은유적 표현에 의한 부각과 은폐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 28(2), 49-78, 한국언어과학회. Kim, C. (2021). A study on the highlighting and hiding caused by metaphorical expressions in newspaper editorials o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8(2), 49-78.
- 박용익(2014), 《환자 중심의 의료 커뮤니케이션》, 수문사. Park, Y. (2014). *Patient-centered medical communication*. Sumunsa.
- 송현주(2020), <전염병의 개념화 양상: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동서인문》 14, 103-129,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Song, H. (2020). Conceptualizing pandemic diseases: The case of Covid-19. *Journal of East-West Humanities*, 14, 103-129.
- 송현주(2023), <질병 담화의 은유 사용 양상>, 《어문론총》 97, 31-62, 한국문학언어학회. Song, H. (2022). Metaphor use in disease discours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97, 31-62.
- 안영미·유영미(2018), <환자의 질병 체험 내러티브가 조현병에 대한 지식,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7(2), 189-197,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Ahn, Y., & Ryu, Y. (2018). Effect of a patient illness narrative on knowledge about schizophrenia,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and learning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7(2), 189-197.
- 우상수(2015), 《환자를 위한 의사의 대화법》, 커뮤니케이션북스. Woo, S. (2015). *A doctor's conversation style for patients*. Communicationbooks.
- 유효현·박귀화(2018), <‘의료면담을 잘하는 의사’에 대한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간의 인식 비교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 447-456, 인문사회과학기술통합학회. Yoo, H., & Park, K. (2018). Structural analysis of the perception about ‘doctor who is good at medical communication’ between medical faculty and medical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 447-456.
- 이명선·임정준·강창우·박일환·이민정·박신영(2023), 《환자중심 의료커뮤니케이션 길라잡이》, 토일렛프레스. Lee, M., Im, J., Kang, C., Park, I., Lee, M. & Park, S. (2023). *Patient-centered medical communication guide*. Toiletpress.

- 이병민(2015),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학교 과학 교과서 비교 - 세포 단원의 글의 구조, 어휘, 비유, 탐구형 질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5, 117-15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Lee, B. (2015). A comparison of Korean and US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s - Focusing on text structure, vocabulary, analogy, and questions of inquiry in the unit of cell.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35, 117-159.
- 전혜영·유희재(2016), <메르스에 대한 은유와 이데올로기적 함축- KBS와 JTBC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72, 199-225, 한국어학회. Jeon, H., & Yu, H. (2016). Metaphors for MERS and their ideological meaning: Focusing on the news reports from Korean media KBS and JTBC. *Korean Linguistics*, 72, 199-225.
- 정민주·권태현·박성식·김승현(2023),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 양상과 교육적 시사점 - 한방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 《화법연구》 61, 99-133, 화법학회. Chung, M., Kwon, T., Park, S., & Kim, S. (2023). Communication patterns of medical practitioner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A Korean hospital case study. *Korean Speech and Discourse Analysis*, 61, 99-133.
- 정수정(2017), <독일 유방암 환자들의 질병체험이야기에 나타나는 관용구에 대한 연구>, 《獨逸文學》 58(4), 207-226, 한국독어독문학회. Jeong, S. (2017). A study on idioms appearing in the stories of illness experiences of German breast cancer patients, *Dogil Munhak*, 58(4), 207-226.
- 조민하(2023), <환자중심형 의료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안(1) - 의사의 친절함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96, 1-25, 우리말글학회. Jo, M. (2023). The method for patient-centered medical communication(1) -focused on the doctor's kindnes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96, 1-25.
- 한규석(2007),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Han, K. (2007). *Social psychology*. Hakgisa.
- 황입경(2010), <질병 체험과 서사>, 《의철학연구》 10, 3-28, 한국의철학회. Hwang, I. (2010). The illness experience and illness narrative. *Philosophy of Medicine*, 10, 3-28.
- 황입경(2013), <의료인문학교육에서 질병체험서사의 활용 방안>, 《한국의학교육》 25(2), 81-88, 한국의학교육학회. Hwang, I. (2013). Teaching medical humanities through an illness narrative.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5(2), 81-88.

- Dancygier, B., & E. Sweetser (2014). *Figurative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bbs, R. W. (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off, G., &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